삼성전자는 자사의 가전제품들이 영국 최고 권위 소비자연맹지 위치지가 주관하는 '위치 어워드 2018'에서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

英 소비자 사로 잡은 삼성전자 '올 최고 대형가전 브랜드' 선정

영국 소비자연맹 '위치'

삼성전자는 자사의 가전제품들이 영국 최고 권위 소비자연맹지 위치지가 주관하는 '위치 어워드 2018'에서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위치는 약 1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소비자연맹지다. 2007년부터 매년 전문가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동차, IT(컴퓨터·모바일), 가전 등 총 11개 부문별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1개 브랜드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브랜드를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특히 유럽의 전통 있는 가전 브랜드들을 제치고 최초로 최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은 지난 1년간 위치에서 진행한 평가에서 '패밀리허브' 냉장고, '퀵드라이브' 세탁기, 인덕션 쿡탑을 포함해 평가 받은 전 제품 중 약 78%의 제품이 '베스트 바이'에 선정되며 '올해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냉장고는 지난 1년간 위치가 평가한 냉장고 제품 중 최고 점수를 부여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작년 말에 가전·IT 제품 평가 전문지 트러스티드 리뷰에서도 건조기 제품으로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에 선정되는 등 영국 시장에서 호평을 이어오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KT의 모델들이 서울광장에서 1일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대한민국 대 보스니아)의 거리 응원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KT

"러시아 월드컵 응원, KT와 함께 하세요"

축구국가대표 공식 후원사

KT는 6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국가대표 평가전(대한민국 vs보스니아) 및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 현장 이벤트를 열고 서울광장에서는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KT는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공식 후원사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기업홍보 부스인 'CD(commercial display) 존' 운영과 함께 경기 중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CD 존에 설치된 라이브 스테이지에서는 록 밴드 '트랜스픽션'과 '락킷걸'이 공연과 함께 응원전을 펼친다. 또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 입장 전 SNS 포토 이벤트로 응원복, 포토볼 등 경품을 증정한다. 경기 종료 후에 진행되는 축구 국가대표 출정식에서는 KT 드론레이싱팀 김민찬 선수가 드론 축구공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현대글로비스, 반부패경영 인증 획득

현대글로비스가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31일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반부패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에 제정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현대글로비스는 공인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ISO 37001 인증을 받아 국제 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은 공인인증기관이 기업의 반부패 의지 및 리더십, 부패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리스크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활동 등을 엄격히 심사해 국제 평가기준을 통과한 곳에만 수여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인증 획득을 위해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이슈를 도출하고 리스크 평가를 시행했다. 취약 부분은 부서별로 개선목표를 수립해 관리하는 한편,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심사원을 선발해 운영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

SKT "갤S9·아이폰X 빌려 쓰세요"

할부보다 저렴한 'T렌탈' 개시

24개월 후 렌탈기간 만료시 반납
만료 전 중고폰가격 지불하면 소유
갤S9 3만원대·단말 할부금보다 ↓

#. A씨는 최근 100만원을 훌쩍 넘긴 스마트폰을 선뜻 구매하기 부담스럽다. 2년 뒤에 또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은데 월 4만원대 할부금을 2년간 꼬박 내며 구매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고심 끝에 2년간 월 3만원대 렌탈료로 새 스마트폰을 빌려 쓰는 'T렌탈'에 가입했다. 매월 비용 부담도 줄고 향후 기기 처리에 대한 고민도 사라졌다.

〈'T렌탈' 스마트폰 렌탈료〉

SK telecom		갤럭시S9	아이폰8	아이폰X
출고가		957,000원	946,000원	1,360,700원
월부담금	구매시ⓐ	42,372원	41,885원	60,246원
	렌탈시ⓑ	34,872원	31,885원	47,746원
차이 ⓐ-ⓑ		-7,500원	-10,000원	-12,500원

* 월 부담금은 단말 할부수수료(5.9%)포함 금액. 위 모델 64GB 기준.
* 위 모델 외에도 갤럭시S9, 아이폰X 시리즈는 모두 렌탈 가능. /사진·자료=SK텔레콤

SK텔레콤이 고객가치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마트폰 임대 사업에 나선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월 3~4만원대에 최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T렌탈'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처럼 스마트폰도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렌탈·케어 서비스 'T렌탈'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T렌탈은 매월 렌탈료를 내고 빌려 쓰다가 24개월 뒤에 렌탈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하는 구조다. 24개월 만료 전에 중고폰의 가치를 지불하면 반납하지 않고 소유할 수도 있다.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때는 중도해지변상금이 발생한다.

임대 대상은 '갤럭시S9', '아이폰8', '아이폰X' 시리즈이고, 향후 신규 스마트폰이 추가될 예정이다.

월 임대료는 ▲갤럭시S9 64GB 3만4872원 ▲아이폰8 64GB 3만1885원 ▲아이폰X 64GB 4만7746원이다.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의 월 할부금보다 7500원에서 1만2500원 가량 저렴하다.

스마트폰의 임대료와 중고폰의 가치는 맥쿼리(Macquarie)가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맥쿼리는 호주 1위 이통사 텔스트라(Telstra)와 렌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T렌탈은 기존 갤럭시클럽이나 아이폰클럽과 대비해 별도의 이용료가 없고 중고폰 반납 시점이 아닌 개통 첫 달부터 할인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분석 결과 고가 스마트폰 이용 고객이 중저가 스마트폰 이용 고객보다 더 자주 제품을 교체하고, 중고폰 처분 경험이 없는 고객이 약 70%로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렌탈에 대한 잠재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와 11번가에서 T렌탈 가입을 신청하고 택배로 스마트폰을 받으면, T월드다이렉트 고객센터를 통해 개통할 수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스마트폰 관리 서비스인 'T올케어'도 출시했다. T렌탈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하면 일반 할부 구매처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T올케어에 가입하면 ▲하루 만에 보상폰 받는 분실·파손 보험▲24시간 스마트폰 상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올케어'는 'T렌탈' 고객 외에도 모든 신규, 기기변경 고객이 별도 가입할 수 있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사장)은 "같은 제조사가 만든 스마트폰이라도 SK텔레콤 고객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스마트폰 렌탈·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화S&C-한화시스템 전격 합병 "책임경영 정착·일감몰아주기 해소"

그룹 경영기획실 해체

한화그룹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나선다.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을 합병하는 한편 그룹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제도와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3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은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간 합병을 의결했다. 두 회사의 합병법인은 오는 8월 '한화시스템'이라는 사명으로 새 출발한다.

합병법인의 주주별 예상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2.9%로 가장 높고, 에이치솔루션과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컨소시엄이 각각 26.1%와 21.0%다.

이후 에이치솔루션은 합병법인 보유지분의 약 11.6%를 스틱컨소시엄에 매각한다는 계획이어서 지분율은 14.5%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비상장사(상장사는 3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에이치솔루션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50%)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25%), 김동선 씨(25%)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한화S&C'에서 '총수 일가→에이치솔루션→한화S&C'로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나 여전히 총수 일가 회사가 한화S&C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했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지분 정리를 통해 이를 사실상 해소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은 이날 이사회 중심의 경영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출신 사외이사 임명을 지양하는 동시에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주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해 주주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도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그룹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최상위 지배회사인 ㈜한화가 그룹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은미 기자

현대차 기술직 신입사원들이 '안전골든벨' 행사에 참석해 퀴즈를 풀고 있다.

현대차 "안전이 최우선" 신입사원 '안전 골든벨'

현대자동차가 기술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5월 29일에 이어 31일 경주 한화리조트와 코오롱호텔에서 두 차례 열린 이번 안전골든벨 행사는 신입사원들이 입문교육 단계부터 안전의식을 배우고 생산현장 배치 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운데 특별 채용된 4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특별 제작한 안전·보건·소방·환경 관련 교재를 활용해 2주간 사전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O, X퀴즈와 단답형으로 문제를 풀었다.

현대차는 기술직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안전 골든벨 행사를 계속 열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전 최우선으로 최고의 품질 우수 공장 실현'을 생산공장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안전문화 학산 정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